

The Companion of the Beauty of the Costume in the Gothic and Renaissance Periods

Hyun-Sook Chung and Jin-Goo Kim

Full-time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Pukyung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The standard of the beauty of costume depends on the culture. Fashion is a reflection of the culture, including politics, economics, society, science, literature, architecture, art, the taste of an age. James Laver believed that fashions of a particular period reflect the "spirit of the Age". The culture is different by the country and the age. Also, the view of the beauty of costume is different by the country and the age. This study analyzes the ideal beauty of the costume in the Gothic and Renaissance periods which had different culture and the spirit of the age.

The characteristic of Gothic costume is the form of the loose enveloping of the body, due to the influence of the Christian religion, and the emphasis on the vertical line influenced by the steeple in the Gothic architecture expressing the enthusiasm of the religion. When religious values are dominant, dress tends to enshroud the figure in a relatively loose garment of simple design. The emphasis on height in the Gothic cathedrals reflected in the hennin, pointed shoes, and lengthy sleeves of Gothic dress. Pointed, elongated forms were considered the ideal, and Gothic costume went beyond the limits of the body - the crown of the head and the soles of the feet - to give an illusion of slenderness to the figure and an emphasis on vertical lines.

The beauty of Renaissance costume lies in the form of the exposing body, the exaggerated silhouette, the emphasis on the horizontal line, the use of ruff and slash in order to display the beauty of human body and the beauty of cubic.

The dominant ideals that shape the thought and action of a cultural period also influence the character and direction of fashion movements. We see that every era had its characteristic line and form, very relevant to the Zeitgeist. The extremes of elongation observed in the late Gothic period in the form of tall hats and pointed shoes reached the opposite in the extreme width of the fashions of the Renaissance.

The ideal beauty of Gothic and Renaissance costume was influenced by the spirit of the age and was in contrast.

고딕 시대와 르네상스 시대의 복식미 비교

정 현 숙 · 김 진 구

부경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 한양대학교 외류학과

복식미의 기준은 문화에 따라 다르다. 패션은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문학, 건축, 미술 등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James Laver는 특정한 시대의 패션은 그 시대의 정신을 반영한다고 하였다. 문화는 나라와 시대마다 다르며, 또한 복식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관점도 나라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본 연구는 문화와 시대 정신이 달랐던 고딕 시대와 르네상스 시대의 이상적인 복식미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고딕 시대 복식의 특징은 기독교의 영향으로 신체를 드러내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신체를 느슨하게 감싸는 형태였다. 또한 종교적 열망을 표현한 고딕 성당의 뾰족한 첨탑의 영향으로 수직선이 강조된 복식이었다. 이러한 예는 여성의 헤드 드레스인 Hennin과 남자의 헤드 드레스인 후드의 끈이 길고 뾰족한 Liripipe, 남자의 앞이 길고 뾰족하게 나온 신발인 Crackowes, 소매나 옷단의 장식인 톱니 모양의 가장자리 장식 등에서 첨형과 수직선의 강조가 더 잘 나타난다. 고딕 시대의 복식미는 종교적인 열망에서 비롯된 고딕 건축의 뾰족하게 수직으로 치솟은 첨탑의 영향으로 첨형과 수직선을 강조한 형태와 신체를 가리는 복식에 있었다. 아름다워 보이려는 인간의 욕구 때문에 계급이 높을수록 모자의 높이와 신발의 뾰족한 길이가 더 길었고, 신체를 더 많이 가리는 복식을 착용하였다. 이 시대에는 신체 부위를 가리는 헤드 드레스와 장갑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십자군 전쟁의 실패로 기독교 정신이 약화된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은 신 중심의 생활에서 인간 중심의 생활로 변화하게 되었으며, 모든 예술 활동도 역시 인간 중심이 되었다.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은 고딕 건축의 수직으로 치솟던 수직선이 점차 낮아져서 수평선이 되었으며, 르네상스 복식도 건축과 유사하게 수평선이 강조되었다. 르네상스 시대의 복식은 인체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종교적으로 고양된 시대에는 항상 가렸던 신체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남성은 남성의 인체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어깨와 소매, 가슴을 과도하게 부풀려 과장된 실루엣을 만들었다. 여성은 여성의 인체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목둘레선을 깊이 파고 허리를 가늘게 조였으며, 허리를 가늘게 보이기 위하여 스커트를 부풀렸다. 르네상스 시대의 신발에서도 수평선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앞이 길고 뾰족한 고딕 시대의 신발과는 대조적으로 신발의 앞이 직선으로 납작한 모양을 띠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과장된 실루엣을 만들기 위하여 패드와 두텁고 무거운 직물을 사용하였다. 르네상스의 복식미는 인체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과장되어진 실루엣과 수평선을 강조한 것과 러프와 슬래쉬 등을 사용한 인체미에 있었다. 르네상스 시대의 계급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욱 인체를 부풀렸으며, 러프와 슬래쉬등을 과다하고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신 중심의 생활을 하였던 고딕 시대의 복식미는 수직선의 강조와 신체를 느슨하게 가리는 복식에 있었고, 인간 중심의 생활을 하였던 르네상스 시대의 복식미는 수평선의 강조와 신체를 드러내거나 강조하는 인체미를 나타내는데 있었다.

시대 정신에 따라서 복식미도 달랐으며, 고딕 시대와 르네상스 시대의 이상적 복식미는 대비를 이루었다.